

제 1 교 시



2015학년도 육군사관학교 1차 선발시험 문제지

# 국 어 영 역

B형

성명

수험번호

- 자신이 선택한 유형(A형/B형)의 문제지인지 확인하십시오.
- 문제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의 해당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정확하게 표기하십시오.
-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릅니다. 3점 문항에는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점수 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점입니다.

※ 시험이 시작되기 전까지 표지를 넘기지 마시오.

공 권

[1 ~ 3] 다음은 토의의 일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자** : 소셜커머스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한 전자상거래의 일종으로 일정 수의 공동 구매자를 모아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최근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피해를 입는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 시민 단체 대표 김○○님과 소비자정책연구원의 이△△ 교수님을 모시고 소셜커머스 이용에 따른 피해와 그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김 대표님께서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이어서 이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김 대표** :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살펴 보면, 광고로 접했던 것과 구입한 상품이 달라 피해를 입은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정상 가격으로 상품을 구입한 소비자들과 다르게, 차별 대우를 받은 소비자들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이유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수** : 소셜커머스를 이용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 소셜커머스를 이용해 가족 외식권을 구매한 적이 있는데요, 가족들과 함께 간 식당에서 광고했던 음식이 아닌 다른 음식이 나와 가족 외식을 망친 적이 있었습니다. 업체에 항의를 했지만 법적으로 명확한 보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국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회자** :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와 피해를 보상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것이 소비자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번에는 먼저 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교수** :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셜커머스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전담 기구를 만들고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업체들이 보상하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과 법규를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소셜커머스 업체를 이용한 소비자들의 개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도 강구되어야 합니다.

**사회자** : 개인 정보 유출 문제는 차후에 따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앞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맞추어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 보겠습니다.

**김 대표** : 소셜커머스라는 새로운 상황에 맞게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겠지요. 그렇지만 법과 제도의 개선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은 관계 당국이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존 법규를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업체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허위·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것입니다.

**사회자** : 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추진되어야 하고 아울러 현행 법규를 토대로 단속과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소셜커머스의 경우 소비자들이 상품을 구매하기 전 업체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속는 소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없을까요?

**김 대표** : 소비자들이 소셜커머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를 조사한 자료들에 따르면, 업체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 부족으로 불편함을 느낀 소비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수백여 개의 소셜커머스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 개인이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해서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단체 및 정부 차원에서 소셜커머스 업체들의 실태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A]

## 1. 위 토의 참여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김 대표는 소셜커머스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느슨한 단속을 문제 삼고 있다.
- ② 김 대표는 소셜커머스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③ 김 대표는 이 교수가 제시한 방안의 문제점을 언급한 후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이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소극적인 대응을 문제 삼고 있다.
- ⑤ 이 교수는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을 중시하고 있다.

## 2. 위 토의에서 사회자가 수행하고 있는 역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토의 참여자의 발언 순서를 지정해 주고 있다.
- ② 토의의 배경을 제시하며 토의 주제를 소개하고 있다.
- ③ 토의 참여자들의 발언 내용을 요약·정리해 제시하고 있다.
- ④ 토의 참여자들 간의 의견 충돌로 인한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⑤ 토의가 논점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논의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 3. 위 토의를 참관한 청중이 [A]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한 개인의 특수한 사례만을 근거로 제시해 주장의 타당성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② 자료의 출처와 구체적인 수치를 밝히지 않아 주장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③ 앞서 제시한 주장들과 상충되는 주장을 함으로써 발언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④ 앞서 논의된 토의 내용을 거듭 반복해서 말함으로써 논의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군.
- ⑤ 상반된 입장 중에 한 쪽만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함으로써 내용의 공정성을 떨어뜨리고 있군.

[4 ~ 5] 다음은 세 학생의 대화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민규 : 경아야, 먼저 와 있었구나. 시간 내 줘서 고마워.

경아 : 응, 할 말 있다더니 무슨 일이야? 지영이도 같이 왔네, 안녕?

지영 : 응, 오랜만이야.

민규 : 경아야, ㉠ 다름이 아니라 지영이랑 나랑 영화 토론 동아리 하는 거 알지? 우리 동아리에서 이번 여름 방학에 선생님들 모시고 토론회를 여는데 같이 하자.

경아 : ㉡ 이런 말 하긴 좀 그런데, 난 솔직히 별로 내키지 않아. 영화는 혼자서 즐기는 게 더 좋거든. 그냥 스스로 느끼고 생각하는 걸로 충분하지 않나?

민규 : 영화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 보면 좋은 점이 많아. 내가 놓친 장면의 의미도 생각하게 되고, 나만 혼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구나 하는 데서 위안도 얻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도 하거든. 이만한 공부가 없다 싶어.

㉢ 그렇지?

지영 : 응, 맞아. 더구나 이번 방학엔 영화와 문학을 주제로 하는데, 너 그 분야에 관심 많지 않아?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야.

경아 : 그래? 음, 그래도 용기가 안 나네. 그런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게 서툴기도 하고.

지영 :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 나도 처음엔 그랬으니까. 너도 내 성격 알잖아.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라졌어.

민규 : 난 방학마다 참여해서 이번에 다섯 번째인데 어떤 때보다 프로그램이 좋아. 네가 좋아하는 김○○ 선생님도 참석하실 건데. 우리 같이 하자.

경아 : 그래? 그럼 나도 한번 해 볼게. ㉣ 그러나저러나 너흰 방학 때 다른 계획은 없니? 난 벌써부터 해야 할 공부 때문에 걱정이다.

지영 : 그러게 말이야. 나도 밀린 공부랑 과제물 때문에 정신없을 것 같아.

민규 : 다 그렇지 뭐. ㉤ 그건 그렇고, 그럼 영화 토론 같이 하기로 한 거다.

경아 : 그래, 알았어. 어떤 작품들이야?

4. <보기>를 참고할 때 ‘민규’와 ‘지영’의 말하기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설득 전략은 화자, 청자, 메시지의 구성 요소로 나누어 접근할 수 있다. 우선 ㉠ 화자 측면에서는 화자의 권위, 지식, 열정, 경험 등이 화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여 설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청자 측면에서는 청자의 요구나 관심을 파악하고, 청자와의 심리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것이 설득 효과를 높일 수 있다. 한편 ㉢ 메시지 측면에서는 메시지의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 화자의 강압에 의해서가 아니라 청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 ① 민규가 ‘다섯 번째 참여’한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② 민규가 ‘김○○ 선생님도 참석하실’ 것임을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화자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③ 지영이가 ‘나도 처음엔 그랬’음을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청자와의 심리적 일체감을 높이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④ 지영이가 ‘영화와 문학을 주제로’ 한다는 것을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청자의 요구나 관심을 환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 ⑤ 민규가 ‘위안’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의 측면에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대화의 화제를 제시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상대방의 제안을 거절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다른 대화 참여자의 동의를 구하고 있다.
- ④ ㉣: 화제를 새로운 화제로 전환하고자 하고 있다.
- ⑤ ㉤: 맞장구를 치면서 상대방의 의견에 동조하고 있다.

[6~7] <보기 1>은 '고등학교 진로 교육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논설문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고, <보기 2>는 개요의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 보기 1 >

(가) 신문 기사

최근 진로 교육이 강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현장 직업 체험 교육을 포함해, 진로 교육을 위한 창의·인성 체험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충분한 준비가 갖추어지지 않아 진로 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들이 실제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사업장을 구하지 못해 직업 체험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교내에서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도 직업 관련 영상물을 시청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 진학에 대한 부담이 큰 고등학교에서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학생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추어 보면 우리의 진로 교육은 아직도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나) 조사 자료

1. 학생의 진로 탐색을 위한 노력

| 노력한 내용                                 | 학교 급 | 노력 정도 |
|--|------|-------|
| 내가 무엇을 잘 하는지 알고 노력한다.                  | 초등학교 | 4.10  |
|  | 중학교  | 3.90  |
|  | 고등학교 | 3.88  |
| 장래 희망을 위해 지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노력한다.   | 초등학교 | 4.12  |
|  | 중학교  | 3.75  |
|  | 고등학교 | 3.85  |
|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일과 관련된 체험 활동에 참여하려고 노력한다. | 초등학교 | 3.16  |
|  | 중학교  | 2.26  |
|  | 고등학교 | 2.16  |

※ 노력 정도

1: 전혀 노력 안 함. / 2: 별로 노력 안 함. / 3: 보통임. / 4: 약간 노력함. / 5: 매우 노력함.

2. 고등학교 교사의 진로 교육 관련 이해도

|                         | 안다 (%) | 보통이다 (%) | 모른다 (%) |
|-------------------------|--------|----------|---------|
| 직업·직장 체험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 22.3   | 32.3     | 43.8    |
| 진로 지도 전문성 함양 방법을        | 29.7   | 38.4     | 30.2    |
| 직업 관련 정보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 35.8   | 37.1     | 25.4    |

(다) 인터뷰

○ “고등학교에 와서 진로 교육을 받아 보았지만 프로그램도 단조롭고 저의 관심과 동떨어진 활동들이 많아서 별로 흥미가 생기지 않아요. 그냥 공부만 잘 하면 되지 왜 굳이 진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 △△ 고등학교 학생

○ “초등학교에서는 자기 이해를 중심으로, 중학교에서는 진로 탐색을 중심으로,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구체적인 진로 계획을 중심으로 진로 교육이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목표에 부합하는 다양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체계적인 교사 연수가 시급합니다. 또한 학교가 지역 사회, 기업 등과 함께 협력하여 진로 교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 □□대 교육학과 교수

< 보 기 2 >

○ 서론

○ 본론

- 1. 현황 ..... ㉠
- 2. 문제점 분석
  - 가. 교사 측면
  - 나. 학생 측면 ..... ㉡
  - 다. 교육 당국 측면
- 3. 개선 방안
  - 가. 교사 측면 ..... ㉢
  - 나. 학생 측면 ..... ㉣
  - 다. 교육 당국 측면 ..... ㉤

○ 결론

6. <보기 1>을 활용하여 <보기 2>를 구체화하는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고등학교의 진로 교육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고등학교 현장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진로 교육' 실태를 다룬다.
- ② (나)-1과 (다)에서 고등학생들이 진로 탐색 및 진로 교육에 임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진로 교육에 임하는 고등학생들의 소극적인 태도' 문제를 다룬다.
- ③ (나)-2와 (다)에서 진로 교육을 담당할 교사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고등학교 교사들을 위한 체계적인 진로 교육 연수 확대' 방안을 다룬다.
- ④ (가)와 (다)에서 학생들이 흥미 위주로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다양한 진로 교육 프로그램에 고등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을 다룬다.
- ⑤ (다)에서 교육청이 주도하여 진로 교육을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에서 '지역 사회, 기업 등과 연계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한 교육 당국의 노력' 방안을 다룬다.

7. <보기 2>의 '서론'을 <조건>에 따라 쓴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 진로 교육의 중요성이 드러나도록 할 것.
- 질문을 하는 방식과 예를 드는 방식을 활용할 것.

- ① 진로 교육이 조용히 확산되고 있다. 진로 교육을 받은 학생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진로를 찾게 되었다며 만족감을 표하는 학생들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도 모른 채 표정 없이 문제집만 풀던 아이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이 생기면서 이제 학교는 새로운 활기가 넘친다. 진로 교육이야말로 우리 교육이 가장 힘써야 할 과제임을 잘 보여 주는 대목이다.
- ② 직업은 인간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잘 고려하여 직업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영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은 자국의 청소년들이 실질적인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이처럼 선진국들이 진로 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는가? 진로 교육을 그만큼 중요한 과제로 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 ③ 사회가 복잡해지고 직업이 다양해지면서 직업 선택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자신의 직업에 대해 만족하는 사람을 찾기란 쉽지 않다. 또한 전공과 관련 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높고, 대학 졸업 후에 다시 새로운 과를 선택해 재입학하는 경우도 해마다 늘고 있다. 이러한 사례들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시기에 이루어지는 진로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다.
- ④ 최근 직업 현장에서 체험을 하는 중·고등학생들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무척 반가운 일이다. 청소년 시기에 직업 현장에서 직접 몸으로 부딪치며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본다는 것이 얼마나 흥미롭고 신나는 일인가? 하지만 직업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바로 땀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다.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땀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노동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 ⑤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의 학력지수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행복지수는 매우 낮다고 한다. 이에 비해 핀란드의 고등학생들은 학력지수와 함께 행복지수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을 많이 길러내는 교육 제도라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하는 교육 제도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교육 제도를 만들 때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살펴 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8. <보기>의 항목 중, <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 보고서 작성 계획 ◇

- ㄱ. 견학의 목적을 제시한다.
- ㄴ. 장소 선정의 경위를 밝힌다.
- ㄷ. 견학 중 이동한 경로에 따라 내용을 조직한다.
- ㄹ. 견학을 통해 새로 알게 된 정보를 제시한다.
- ㅁ. 좋았던 점과 함께 아쉬웠던 점을 밝힌다.

제목: △△ 자연사 박물관을 다녀오다.

작성일: 2014년 ○월 ○일

작성자: ◆◆고등학교 생물탐구반

우리 생물탐구반은 방학을 맞아 그동안 책에서만 배웠던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느껴보기 위해 자연사 박물관을 견학하기로 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 자연사 박물관은 우리나라 최초로 세워진 자연사 박물관으로, 규모가 그리 큰 편은 아니지만 다양한 전시관을 갖추고 있으며 알찬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우리 학교에서 버스로 쉽게 갈 수 있는 곳이어서 우리는 △△ 자연사 박물관을 견학 장소로 선택하게 되었다.

△△ 자연사 박물관에 도착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간 곳은 1층에 있는 '지구 환경관'이다. 지구의 탄생 과정과 지각의 구조에 대해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방이었는데, 원시 지구에서 생명의 터가 형성되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전시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고생대 말인 3억 년 전만 하더라도 지구상의 모든 대륙이 하나의 초대륙을 이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다음으로 우리가 간 곳은 2층에 있는 '생명 진화관'이었다. 이곳은 다양한 생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진화되어 왔는지를 잘 보여 주고 있었는데, 특히 남세균류의 화석이 전시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이것을 통해 남세균류가 지구 최초의 생명체 증거라는 것을 새로 알게 되었다. 3층에 있는 '인간과 자연관'은 살아 있는 생명체 구역, 멸종 위기 생명체 구역 등 다양한 주제를 가진 구역들로 꾸며져 있었는데, 인간이 자연과 오랫동안 공존하기 위해서는 더욱 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지하에 있는 '가상 체험실'에서 공룡이 활동했던 시기를 4D 영상으로 가상 체험할 수도 있었다.

책에서 공부했던 내용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설렘과 새로운 지식을 얻게 된 기쁨이 매우 큰 하루였다. 학교에 돌아가면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곳을 한번 방문해 볼 것을 권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견학을 마쳤다.

① ㄱ

② ㄴ

③ ㄷ

④ ㄹ

⑤ ㅁ

[9~10]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작문 상황

김누리 학생은 작문 시간에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글쓰기'라는 과제를 수행했다.

※ 김누리 학생의 수필

이번 설 전날, 어머니와 함께 ○○마트에 갔을 때의 일이다.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서 어떤 아저씨가 귀엽게 생긴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고 있었다. 아기는 젓꼭지를 물다 이내 울음을 터트리곤 했는데, 주변 소리가 성가신 듯했다.

어느새 아기 웅가 냄새가 폴폴 나기 시작한다. 울음 끝에 일을 보고 만 것이다. 아기를 데리고 화장실로 가겠지?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는 그 자리에서 기저귀를 갈기 시작한다. 결코 익숙해지지 않는 시큼하고 비릿한 냄새. 마치 과도타기를 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대화를 멈추고 이 쪽을 쳐다보기 시작한다. 그 모양이 꼭 냄새가 번지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결국 직원이 가서 무슨 말을 하자 아저씨는 화를 내며 아기를 안고 나가버리는 것이 아닌가.

집에 돌아오는 길, 어머니께선 ㉡ 고약한 냄새와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마트 직원들이 곤란했겠다며, 아저씨의 에티켓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 꼼꼼히 생각해 보니, 그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았다. 명절 선물을 사려고 했을 테지. 엄마는 왜 없었을까. 엄마가 있었다면 수유실로 갔겠지. 그렇지만 웅가는..... 그래, 그 마트 남자 화장실에는 기저귀 교환대가 없었다. 그렇다고 변기 뚜껑 위에 아기를 눕힐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 아저씨는 모유 수유실도, 화장실도 이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다. 모유 수유실도 기저귀 교환대도 없었지만, 엄마들이 뒤돌아 앉아 아기들의 배를 채워주고, 기저귀를 갈아줄 만한 공간은 어디든 있었으니, 널런 게 요람이었다. 우선은 도시 공공시설에 아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실을, 남자 화장실에 기저귀 교환대 설치를 확대해야겠지만, 그런다고 계절이 돌아오듯 아기들이 행복했던 시절이 돌아올까. 아기 전용 공간이 늘어나지만 도리어 아기에게 허용된 공간은 줄어들고 있는 이 ㉣ 췌변에 나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야 했다.

가장 행복했어야 하는 존재지만, 충분히 배려 받지 못했던 그 아기.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 물론 그 아저씨에게 뭐라 말을 건넸던 직원처럼 우리도 할 일은 해야 하겠지만, 힘차게 기저귀를 풀어헤치던 아저씨의 당당한 모습 뒤로 많은 사람들이 눈총을 주는 모습이 떠올랐다. 아, 그 사이에 내가 있었구나!

9. 다음은 뒷글을 쓰기 위해 세운 글쓰기 전략과 구체화 방안이다. 뒷글에 사용되지 않은 것은?

| < 글쓰기 전략 >     | < 구체화 방안 >   |
|----------------|--|
| 사건을 새롭게 해석한다.  | ⇒ • 사건을 아저씨의 입장에서 헤아려 본다. .... ①   |
| 효과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 ⇒ • 현재형 종결 표현과 동작 묘사를 통해 현장감이 느껴지도록 한다. .... ②<br>• 비유법을 사용하여 표현의 효과를 높인다. .... ③        |
| 성찰한 내용을 제시한다.  | ⇒ •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과 예상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④<br>• 평범한 사건에 내재해 있는 삶의 본질적인 문제를 밝힌다. .... ⑤ |

10. ㉠~㉣을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문장의 접속 관계를 고려하여 '한편'으로 고쳐 쓴다.
- ② ㉡은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었으므로 '고약한 냄새가 나고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로 고쳐 쓴다.
- ③ ㉢은 맞춤법에 맞도록 '곰곰이'로 고친다.
- ④ ㉣은 문맥에 어울리지 않으므로 '역설'로 바꾼다.
- ⑤ ㉤은 문단의 통일성을 해치므로 삭제한다.

11. <보기 1>을 토대로 <보기 2>의 ㉠~㉣의 발음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1 >

<'소리의 길이'에 관한 표준 발음법 규정 요약>

| 구분  | 규정 내용   | 예시   |
|-----|---|--|
| 제6항 | 모음의 장단을 구별하여 발음하되, 단어의 첫 음절에서만 긴소리가 나타나는 것을 원칙으로 함.<br>[붙임] 용언의 단음절 어간에 어미 '-아/어'가 결합되어 한 음절로 축약되는 경우에도 긴소리로 발음함. | 많다[만:타]    알다[알:다]<br>멀리[멀:리]    꼬다[꼬:다]<br>두어[두어]→뒤[뒤:]<br>기어[기어]→겨[겨:] |
| 제7항 | 긴소리를 가진 음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짧게 발음함.<br>1. 단음절인 용언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가 결합되는 경우<br>2. 용언 어간에 피동, 사동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       | 감다[감:따]-감으니[가므니]<br>밟다[밟:따]-밟히다[발피다]                                     |

- < 보 기 2 >
- 철수는 영희와 ㉠ 눈먼 사랑에 빠져 있다.
  - 그녀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 재치가 ㉡ 많고 슬기롭다.
  - 예전에는 새끼로 줄을 ㉢ 파 여러 용도로 사용했다.
  - 바느질을 하는데 ㉣ 감긴 실을 풀지 못해 애를 먹었다.
  - 몰랐던 것을 스스로 ㉤ 알아 가는 데에 공부의 참 재미가 있다.

- ① ㉠의 '먼'은 둘째 음절에 있으므로 [먼]으로 짧게 발음되겠군.
- ② ㉡의 '많-'은 첫음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만:]으로 길게 발음되겠군.
- ③ ㉢의 '파'는 어간인 '꼬-'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파]로 짧게 발음되겠군.
- ④ ㉣의 '감-'은 뒤에 피동 접미사 '-기'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감]으로 짧게 발음되겠군.
- ⑤ ㉤의 '알아'는 어간 '알-'에 어미 '-아'가 결합된 것이므로 [아라]와 같이 어간 부분이 짧게 발음되겠군.

12. <보기>의 ㄱ~ㅁ은 중의문들이다. 제시된 의미 조건에 맞게 ㄱ~ㅁ의 중의성을 해소하는 활동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ㄱ. 형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고 싶어 한다.
- ㄴ. 아름다운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
- ㄷ.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 가지 않았다.
- ㄹ. 언니가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혔다.
- ㅁ. 혜원이는 새로 산 체육복을 입고 있다.

| 구분 | 의미 조건                              | 중의성을 해소한 문장               |       |
|----|------------------------------------|---------------------------|-------|
| ㄱ  | 형은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좋음.                 | → 어떤 사람이든지 형을 만나고 싶어 한다.  | ... ① |
| ㄴ  | 그녀의 손이 아름답음.                       | → 아름다운,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다.    | ... ② |
| ㄷ  | 철호가 도서관에 간 것은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임.       | → 철호가 오늘 도서관에는 가지 않았다.    | ... ③ |
| ㄹ  | 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으라고 시켜서 아이가 직접 옷을 입음. | → 언니가 아이에게 예쁜 옷을 입게 하였다.  | ... ④ |
| ㅁ  | 혜원이는 새 체육복을 이미 몸에 착용했음.            | → 혜원이는 새로 산 체육복을 입은 상태이다. | ... ⑤ |

13. <보기>를 토대로 ‘두음 법칙’에 관한 국어 표기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선생님: 한글 맞춤법 제5절은 두음 법칙과 관련해 국어의 표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어요. 두음 법칙은 주로 한자어의 첫 음절에 있는 어두음에 적용되는데요, 예외적으로 둘째 음절 이하에서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 표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사실에 유의해 다음 자료를 토대로 두음 법칙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탐구 자료]

| 구분 | 올바른 표기                                 | 잘못된 표기                                 | 한자의 본래 음            |
|----|--|--|---------------------|
| ㉠  | 요소(尿素), 익명(匿名)<br>당뇨(糖尿), 은닉(隱匿)       | 뇨소(尿素), 닉명(匿名)<br>당요(糖尿), 은익(隱匿)       | 尿: 뇨 / 匿: 닉         |
| ㉡  | 신여성(新女性), 공염불(空念佛)<br>역이용(逆利用)         | 신녀성(新女性), 공념불(空念佛)<br>역리용(逆利用)         | 女: 녀 / 念: 념<br>利: 리 |
| ㉢  | 규율(規律), 백분율(百分率)<br>보급률(普及率), 시청률(視聽率) | 규률(規律), 백분률(百分率)<br>보급율(普及率), 시청율(視聽率) | 律: 률 / 率: 률         |
| ㉣  | 열역학(熱力學), 해외여행(海外旅行)                   | 열력학(熱力學), 해외러행(海外旅行)                   | 力: 력 / 旅: 려         |
| ㉤  | 낙원(樂園), 뇌성(雷聲), 누각(樓閣)                 | 락원(樂園), 뢰성(雷聲), 루각(樓閣)                 | 樂: 락 / 雷: 뢰<br>樓: 루 |

- ① ㉠ → 모음 ‘ㅛ, ㅣ’ 앞에 ‘ㄴ’이 사용된 한자음이 단어 첫머리에 오면 두음 법칙에 따라 ‘ㄴ’을 표기에 사용하지 않는데, 단어 첫머리 이외의 경우에는 본음대로 적어야 하는군.
- ② ㉡ →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 뒤에 붙어 있는 한자어는 그 첫소리가 ‘ㄴ’이나 ‘ㄹ’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 ‘ㄴ’이나 ‘ㄹ’을 표기에 사용하지 않는군.
- ③ ㉢ → 한자음 ‘률’이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자음 뒤에 위치하는 경우와 달리 ‘률’을 본음대로 적어야 하는군.
- ④ ㉣ → 한자어들로 이루어진 합성어는 뒷말의 첫소리가 ‘ㄹ’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을 적용해 ‘ㄹ’을 표기에 사용하지 않는군.
- ⑤ ㉤ → 모음 ‘ㅏ, ㅑ, ㅓ’ 앞에 ‘ㄹ’이 사용된 한자음이 단어의 첫머리에 오면 ‘ㄹ’ 대신에 ‘ㄴ’으로 적어야 하는군.

14. 다음은 '이르다'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사전을 찾아 정리한 것이다.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르다<sup>1</sup> [이르러, 이르니] 「동사」

- ㉠ 【...에】 어떤 장소나 시간에 닿다.
- ㉡ 【...에】 어떤 정도나 범위에 미치다.

이르다<sup>2</sup> [일러, 이르니] 「동사」

- ㉢ 【...에게 ...을】 【...에게 -고】 무엇이라고 말하다.
- ㉣ 【...을】 【...에게 ...을】 【...에게 -고】 【...에게 -도록】 타이르다.
- ㉤ 【...에게 ...을】 【...에게 -고】 미리 알려 주다.
- ㉥ 【...에게 ...을】 【...에게 -고】 어떤 사람의 잘못을 윗사람에게 말하여 알게 하다.
- ㉦ 【...에게 -고】 어떤 대상을 무엇이라고 이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

이르다<sup>3</sup> [일러, 이르니] 「형용사」

【...보다】 【-기에】 대중이나 기준을 잡은 때보다 빠르거나 앞서다.

- ① '이르다<sup>1</sup>', '이르다<sup>2</sup>', '이르다<sup>3</sup>'은 별개의 표제어로 기술되어 있으니 동음이의어이군.
- ② '이르다<sup>1</sup>'과 '이르다<sup>2</sup>'는 하나의 표제어에 두 개 이상의 의미가 있으니 둘 다 다의어이군.
- ③ '이르다<sup>1</sup>'과 '이르다<sup>2</sup>'는 어간에 어미 '-어'가 붙으면 활용의 형태가 달라지는군.
- ④ '이르다<sup>1</sup>' ㉠과 '이르다<sup>2</sup>' ㉢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로 다르군.
- ⑤ '이르다<sup>3</sup>'의 용례로 '그는 항상 나보다 빨리 결승점에 이르렀다.'를 들 수 있겠군.

15. 다음의 ㉠~㉥에 사용된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
|---|---|
| ㉠ | <한 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br>선생님 아까 수업 마치시고 일찍 퇴근하시는 것 같던데.                       |
| ㉡ | <가게 점원이 손님에게><br>손님,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
| ㉢ | <손자가 할아버지에게><br>할아버지, 고모가 진지 잡수시라고 하였습니다.                                 |
| ㉣ | <학교 후배의 집에 전화한 선배가 후배의 초등학생 아들(철호)에게><br>철호야, 잘 있었어? 아저씨인데, 아빠 지금 집에 계시니? |
| ㉤ | <장모가 사위에게><br>잘 가게. 특히 고속도로에서 운전 조심하게.                                    |

- ① ㉠: 선어말 어미 ‘-시-’를 통해 주체인 선생님을 높여 말하고 있다.  
 ② ㉡: ‘나오셨습니다’는 ‘커피’를 손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대상으로 생각하여 간접 높임 표현을 과도하게 사용한 것이므로 ‘나왔습니다’로 고쳐 말해야 한다.  
 ③ ㉢: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특수 어휘 ‘잡수시다’를 통해 높여 말하지만, 할아버지보다 낮은 사람인 고모에 대해서는 ‘하였습니다’와 같이 말하여 주체를 높이지 않고 있다.  
 ④ ㉣: 화자의 후배이지만 청자인 아들의 입장에서는 높여 말해야 하는 아버지이므로, 화자는 특수 어휘 ‘계시다’를 통해 후배를 높여 말하고 있다.  
 ⑤ ㉤: 화자인 장모는 사위를 높여 말해야 할 필요가 없으나, 직접적으로 낮춰 말하기가 어색하므로 두루 높임의 하계체 명령형 어미를 통해 사위를 높여 말하고 있다.

16.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2>의 ㉠과 ㉡에 알맞은 것을 고른 것은?

< 보 기 1 >

중세 국어에서 현대 국어의 '에'나 '에서'에 해당하는 부사격 조사로 사용되었던 '애/예/예'는 일반적으로 선행하는 체언의 끝 음절에 사용된 모음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쓰였다.

| 선행 체언의<br>끝 음절 모음 | 부사격 조사 | 사례  |
|-------------------|--------|---|
| 양성 모음             | 애      | 불휘 기픈 남근 브르매 아니 필썩<br>(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움직이므로) |
| 음성 모음             | 예      | 行宮(행궁)예 도즈기 들어<br>(행궁에 도적이 들어서)                 |
| 이, ㅣ              | 예      | 狄人(적인)스 서리에 가샤<br>(오랑캐들 사이에 가시어)                |

< 보 기 2 >

- 저근 빅 + ㉠ 을오리라 (작은 배에 오르리라)
- 골형 + ㉡ 므를 디내샤 도즈기 다 도라가니(골목에 말을 지나게 하시어 도둑이 다 돌아가니)

- |   |   |   |   |   |   |
|---|---|---|---|---|---|
|   | ㉠ | ㉡ |   | ㉠ | ㉡ |
| ① | 애 | 예 | ② | 애 | 예 |
| ③ | 에 | 예 | ④ | 예 | 애 |
| ⑤ | 예 | 애 |   |   |   |

[17 ~ 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해’와 ‘설명’은 모두 과학의 중요한 방법론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 중 ‘이해’는 주로 인간의 정신세계를 다루는 ‘정신과학’의 중요한 방법론이 되었던 반면에 ‘설명’은 자연적 대상을 다루는 ‘자연과학’의 중요한 방법론이 되어 왔다. 그렇다면 ‘인간의 행위’는 과연 ‘이해’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설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일까?

본능적인 행동을 제외한 인간의 행위 대부분은 어떤 의도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행위는 단순히 물리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정신세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신과학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간의 행위를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다. 물론 타인의 의도를 파악하여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지만 같은 인간이라는 삶의 공통성을 기반으로 타인의 체험을 자신의 체험처럼 느끼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행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은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해’의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확립한 철학자인 딜타이는 ‘객관적 정신’을 내세웠다. [객관적 정신]은 개별적인 인간 정신의 상호 작용에 의해 산출되는 집단 정신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객관적 정신’을 통해 ‘이해의 객관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서로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거나 서로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면 ‘객관적 정신’을 완전히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주장은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모든 과학의 통일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인과적 설명으로 인간의 행위를 비롯한 모든 것에 답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개별 현상을 보편 법칙에 포섭하여 대상을 인과적으로 규명하는 방법론인 ‘설명’은 인간의 행위를 규명할 때에도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인간의 행위를 다룰 때에도 개별적 특성 하나하나에 관심을 두기보다 그 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보편 법칙의 수립에 더 관심을 두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인간의 행위를 어떤 보편 법칙 속에 포섭되는 하나의 사례로 보고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개별 행위를 포섭하는 보편 법칙이 객관성을 갖는다면 그 행위에 대한 설명 역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은 행위에 담긴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보다 그런 의도가 왜 생겨났는가를 묻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렇다고 해도 ㉠ ‘설명’이 ‘이해’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인간의 정신세계에 속하는 의도는 자연처럼 관찰이나 실험으로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정신세계는 어떤 법칙을 따르기보다 개인의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점에서 자신의 체험에 비추어 타인의 의도를 개별적으로 파악하는 ‘이해’는 인간의 행위를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그렇지만 인간의 의도를 모든 상황에서 모두 이해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또한 행위에 담긴 의도를 이해하더라도 그런 의도가 생긴 원인까지 알기는 어렵다. 더 나아가 행위는 결코 의도되지 않은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해’보다 ‘설명’이 더 유용할 수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인간의 행위를 연구하는 방법론으로서의 ‘이해’와 ‘설명’은 상호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관계여야 할 것이다.

17.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로 다른 두 이론이 상호 교섭해 온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 ② 기존의 개념과 새로운 개념을 대비하여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 ③ 서로 관련된 두 이론이 경쟁적으로 발전해 온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④ 이론적으로 설정한 가설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새로운 대안을 탐색하고 있다.
- ⑤ 대립하는 두 방법론을 소개하고 이것에 대한 절충적인 관점을 제안하고 있다.

18. 밑글을 바탕으로 '객관적 정신'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객관적 정신'은 상반된 인식의 차이를 부각한다.
- ② '객관적 정신'은 타인을 이해하는 과정에 순서를 부여한다.
- ③ '객관적 정신'은 대상을 상황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도록 한다.
- ④ '객관적 정신'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공통의 기반이 된다.
- ⑤ '객관적 정신'은 집단 정신의 정당성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19. 밑글과 <보기>를 함께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 콜링우드 는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국교로 삼은 테오도시우스 황제의 칙령을 연구할 때, 황제가 생각했던 것을 자신도 같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에 황제가 처했던 상황이 마치 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그 특수한 상황 속에서 황제가 결단을 내렸던 그 과정을 자신의 마음속에 재연하면서 음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만 단순한 문헌학적 지식과는 다른 진정한 의미의 역사적 지식을 갖게 된다고 보았다.

(나) 험펠은 중세 가톨릭교회에서 판매했던 면죄부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독교인들이 이 면죄부에 대해 가졌던 열망은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두려워하며 구원을 바란다는 보편 법칙에서 생겨난 결과라고 보았다. 따라서 험펠은 면죄부 판매도 특정한 시대의 일회적 사건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고 했다. 면죄부는 일정한 돈만 내면 성직자가 신을 대신하여 일반인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믿음에서 생겨난 것으로 중세 유럽에서 성행했다.

- ① (가)로 보아, '콜링우드'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을 때의 역사적 상황을 직접 관찰할 수 있도록 현실에서 재현하려고 하였군.
- ② (가)로 보아, '콜링우드'는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처한 상황을 자신의 일처럼 느끼는 과정을 통해 황제가 칙령을 내린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겠군.
- ③ (나)로 보아, '험펠'은 중세 유럽에서 성행한 '면죄부 판매'를 보편 법칙에 포섭되는 하나의 사례로 설명하였군.
- ④ (나)로 보아, '험펠'은 기독교인들이 지닌 두려움과 욕망을 '면죄부 판매'라는 사건의 원인으로 보았군.
- ⑤ (나)로 보아, '험펠'은 일정한 조건만 갖추어지면 '면죄부 판매'와 유사한 역사적 사건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보았겠군.

20. ㉠의 이유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서 바르게 골라 짝지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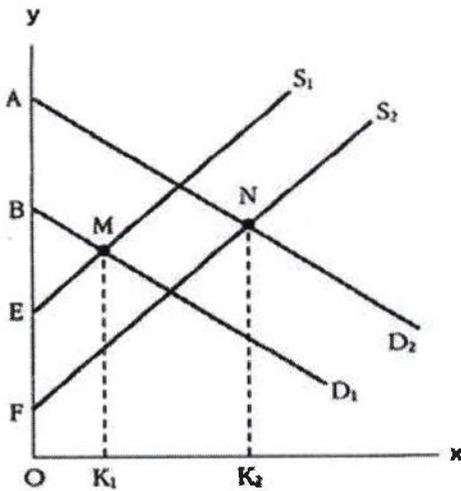
— < 보 기 > —

- ㉠. 타인의 행위에 담긴 의도에 공감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 ㉡. 인간이 지닌 의도는 관찰이나 실험의 대상과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 ㉢. 인간의 모든 행위를 포섭할 수 있는 보편 법칙을 세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 ㉣. '의도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보다 '그 의도가 왜 생겼는가'에 대한 대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 |        |        |        |
|--------|--------|--------|
| ① ㉠, ㉡ | ② ㉠, ㉢ | ③ ㉡, ㉣ |
| ④ ㉡, ㉣ | ⑤ ㉢, ㉣ |        |

[21 ~ 2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인간자본 이론은 시카고학파의 경제학자들에 의해 발전된 이론이다. 이 이론에서는 투자에 의해 인간에게 형성되고 체화된 지식 및 기능 등의 생산적인 힘을 인간자본이라 규정하고 인간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출, 그로 인해 포기된 소득 등을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파악한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게 결정되는 것은 인간자본에 더 많은 투자를 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한다.



<그림>

인간자본 이론을 체계화한 사람은 게리 베커로,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을 통하여 소득 격차를 설명하였다. 베커의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에 따르면, <그림>에서 x축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량’을 나타내며 y축은 수요곡선일 때는 ‘한계수익’을, 공급곡선일 때는 ‘한계비용’을 나타낸다. 여기서 한계수익은 개인의 능력을 반영한 값이며 한계비용은 투자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값이다. 수요곡선 D는 우하향하는데 이는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투자량에 대한 수익이 체감하기 때문이고, 공급곡선 S는 우상향하는데 투자량에 대한 비용이 체증하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D2는 D1보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곡선이며 S2는 S1보다 부유한 사람의 공급곡선이다. 수요곡선에서 투자량이 0일 때 D2의 값 A가 D1의 값 B보다 큰 것은 능력이 우수한 사람에게 더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며, 공급곡선에서 투자량이 0일 때의 S2의 값 F가 S1의 값 E보다 작은 것은 투자 기회의 차이를 반영한 비용은 부유한 사람이 더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각 개인은 한계수익이 한계비용을 상회하는 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기 때문에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수준, 즉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교차하는 점까지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를 한다. 이 때, 인간자본 투자의 총수익은 수요곡선의 아래에 있는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되며 인간자본 투자의 총비용은 공급곡선 아랫부분의 사다리꼴의 면적으로 표시된다. 따라서 인간자본 투자의 순이익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차액인 삼각형의 면적으로 나타난다. 어떤 사람이 D1의 수요곡선과 S1의 공급곡선을 가진다면 K1까지 투자를 하므로 인간자본 투자의 총수익은 OBMK1, 총비용은 OEMK1이므로 순이익은 BEM이 된다.

베커는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에 따라 소득 격차를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과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에서는 투자 기회 측면에서의 공급 조건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만 수요 조건, 즉 동일한 투자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능력 면의 차이 때문에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고 본다. 능력이 우수한 사람의 수요곡선은 능력이 적은 사람의 수요곡선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소득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으로 보면 소득 격차는 불가피하고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대안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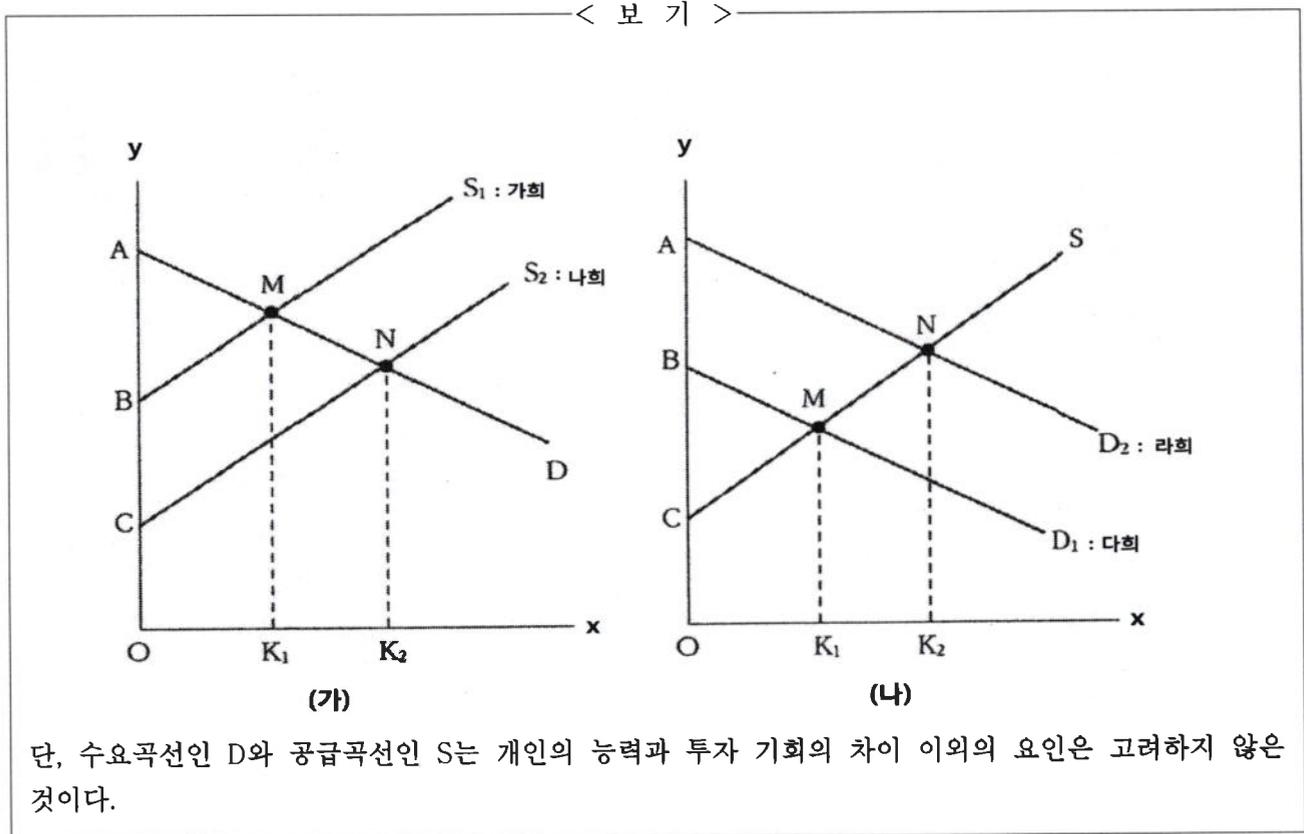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은 모든 사람의 타고난 능력은 비슷하므로 같은 양의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고 본다. 따라서 수요 조건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기 때문에 공급 조건의 차이, 즉 투자 기회에서의 차이에 의해 소득 격차가 야기된다고 본다. 부유한 사람은 유리하게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의 공급곡선이 가난한 사람의 공급곡선보다 아래쪽에 위치하고 이것이 곧 소득 격차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소득 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노동 시장 접근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정책적 함축을 도출하게 한다.

① 베커로 대표되는 인간자본 이론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상당한 공헌을 하였다. 그러나 이 이론이 사회·문화적 요인을 완벽하게 고려하지 않았고 교육의 의미와 효과를 과대평가하였다는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학자들은 인간자본 이론을 지배적 이론으로 수용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행정가들이 이 이론을 정책 입안의 바탕으로 삼고 있다.

21.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간자본 이론은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데에 공헌을 하였다.
- ② 투자에 의해 형성되고 체화된 인간의 지식은 인간자본에 해당한다.
- ③ 베커는 인간자본에 대한 수요 및 공급곡선을 통하여 소득 격차를 설명하였다.
- ④ 인간자본 이론에서는 인간자본 형성을 위해 포기한 소득을 배제하고 투자를 정의한다.
- ⑤ 베커는 소득 격차를 엘리트주의적 접근 방법과 평등주의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밑글과 <보기>를 토대로 22번과 23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22.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에서 OAMK<sub>1</sub>은 '가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총수익이다.
- ② (가)에서 OCNK<sub>2</sub>는 '나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총비용이다.
- ③ (나)에서 BCM은 '다회'의 인간자본 투자에 대한 순이익이다.
- ④ (나)에서 OK<sub>1</sub>은 '라회'의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량이다.
- ⑤ (나)에서 ABMN은 '다회'와 '라회'의 소득 격차이다.

23.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해석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가회’가 ‘나회’보다 소득이 높은 것은 ‘가회’의 능력이 ‘나회’보다 우수하기 때문이다.
- ② ‘가회’는 ‘나회’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사람이다.
- ③ ‘가회’와 ‘나회’의 소득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사회적 대안으로는 교육 기회 보장 정책이 있을 수 있다.
- ④ ‘다회’와 ‘라회’는 타고난 능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기대할 수 있는 수익도 비슷하다.
- ⑤ ‘라회’는 ‘다회’에 비해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 기회가 적으므로 저소득층 지원책을 통해 소득을 높일 수 있다.

24. <보기>를 근거로 하여 ㉠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비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인도에서는 인간자본에 대한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이 계급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난다. 하위 계급 노동자는 상위 계급의 노동자와 동일한 조건에서 교육을 받고 같은 인간자본을 획득하였다고 할지라도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을 얻는다. 하위 계급 노동자가 상위 계급의 노동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사회에서는 인간자본이 충분한 노동자라고 해도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노동에 참여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다.

- 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인간을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시키는 것에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 ② 교육을 통해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은 인간의 잠재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 ③ 노동에 대한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 등에 대한 파악 없이 소득 격차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
- ④ 인간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사회 구조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소득 격차를 설명하는 것은 불충분하다.
- ⑤ 교육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수록 인간의 지식과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은 교육의 효과를 과대평가한 것이다.

[25 ~ 2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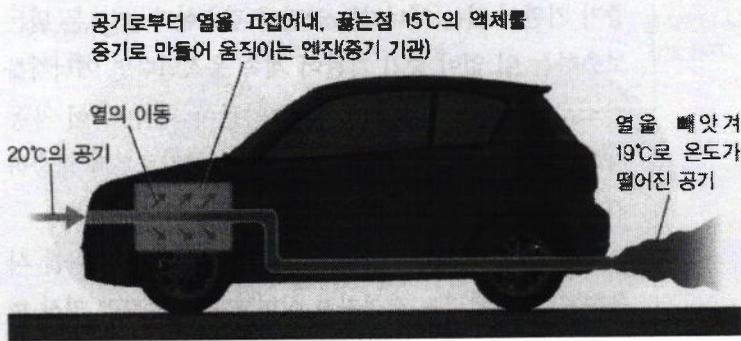


<그림 1>

‘영구 기관’이란 외부에서 어떤 힘을 가하거나 연료를 공급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계속 움직이는 가상의 장치를 말한다. 주로 16세기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많은 영구 기관이 고안되었는데, 그 어느 것도 성공하지 못했다. ㉠ <그림 1>의 장치는 17세기에 고안된 영구 기관으로, 내부가 몇 개의 구획으로 나누어진 원반이 선풍기처럼 회전하면서 각 구획의 벽을 따라 쇠구슬이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이동하도록 되어 있다. 이 장치를 처음 고안한 사람은 시계 방향으로 힘을 가하면 쇠구슬로 인한 회전력에 의해 원반이 영구적으로 회전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이 장치는 결국 멈추었다. 처음에 원반을 돌린 힘은 회전축의 마찰과 쇠구슬이 구르면서 생기는 마찰 등으로 인해 열에너지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장치 안에서 마찰로 인해 손실된 에너지를 보충할 새로운 에너지는 생성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오른쪽에 있는 쇠구슬의 무게로 인해 회전축에 걸린 힘이 모두 원반의 왼쪽에 있는 쇠구슬을 들어 올리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에너지는 그 형태를 바꾸는 경우는 있어도 새로 생겨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설명한 법칙이 바로 ‘열역학 제1법칙’이다. 결국 <그림 1>과 같은 영구 기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열역학 제1법칙에 어긋나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영구 기관 대신 스스로의 힘으로 주변 환경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영구 기관의 작동은 가능하지 않을까? 주변에 있는 공기의 열을 이용하여 달리는 가상의 자동차를 상상해 보자(<그림 2>). 주변 공기의 온도가 20℃인 상황에서, 끓는점이 15℃인 액체를 끓여서 그 증기의 힘으로 작동하는 증기 기관이 장착된 자동차가 있다고 하자. 이때 액체를 끓여 증기를 만드는 데는 주위에 있는 공기만 사용할 수 있으며, 액체를 증기로



<그림 2>

만드는 과정에서 열을 빼앗겨 온도가 떨어진 공기는 자동차 밖으로 배출된다고 하자. 증기를 다시 식혀 액체로 만들 수 있다면 이 자동차는 영구히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증기를 식혀서 다시 액체로 만들 수 있을까? 온도가 20℃인 주변의 공기만을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 이 증기를 15℃ 이하로 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대한 근거가 되는 법칙이 열의 이동에 관한 법칙인 ‘열역학 제2법칙’으로, 그 내용은 ‘열은 고온의 물체에서 저온의 물체로 이동하며, 스스로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위 자동차의 아이디어는 이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결국 <그림 2>와 같은 자동차의 영구적 작동은 불가능한 것임을 알 수 있다.



[28 ~ 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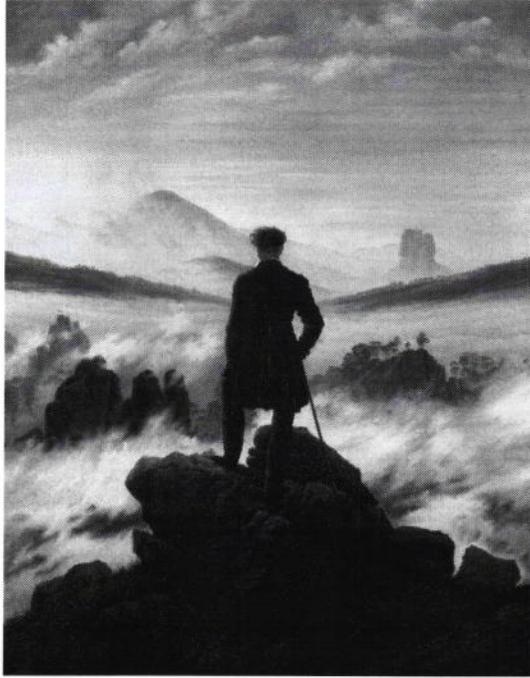
- (가) ㉠ 예술을 진리와의 연관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낭만주의의 큰 특징이다. 낭만주의에서는 과학보다 예술이 한 단계 높은 진리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예술이 그 독특한 힘으로 이성적, 의식적, 논리적 접근으로는 파악될 수 없는, 무한, 영원 등과 같은 보다 심오하고 본질적인 진리나 실재를 우리에게 드러내 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낭만주의 작품에는 유한한 현 상태에서부터 벗어나 무한한 것, 영원한 것을 지향하는 인간의 정신이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낭만주의 경향을 보여 주는 대표적인 작가가 독일의 카스파르 다비드 프리드리히이다. 그의 풍경화는 광활하고 영원한 자연을 대면한 인간의 낭만적 정서를 탁월하게 보여 주었다.
- (나) 프리드리히는 자연을 신의 체현으로, 또 예술을 신과 인간의 매개자로 여겼다. 그는 자연을 통해 신을 만날 수 있으며 훼손되지 않은 자연을 그림 속에 담는 것을 신적인 창작이 구현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풍경화를 통해 자연 속에 내재된 무한함, 즉 신적인 것을 표현해 무한한 것과 유한한 것의 관계를 보여 주고자 했다. 자연을 상징적 도구로 삼아 유한자와 무한자의 관계를 나타내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프리드리히의 풍경화에 그려진 자연은 단순히 사실적인 풍경에 해당하지 않고 인간이 갖는 신비스러운 종교적 감정, 또는 자연과 대면해 관조하며 품은 영원성에 대한 동경과 같은 인간의 낭만적 심정을 보여 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 (다) 프리드리히의 풍경화는 18세기 미학에서 중요시 되었던 ‘숭고’의 감정을 특징적으로 잘 보여 주고 있다. 자연의 규모와 그 힘이 인간이 측량하고 지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설 때 인간은 자연을 대면하여 고통과 쾌감의 상호 모순된 정서를 갖게 된다. 이러한 정서를 칸트는 ‘숭고’라고 이름 붙였다. 이에 따르면 숭고는 측량할 수 없는 자연의 크기와 위력 앞에서 느끼는 외경의 감정으로 우리 정신 속에 무한한 것에 관한 이념을 환기시킨다. 프리드리히는 실제 자연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숭고의 감정을 풍경화를 통해 보여 주었는데, 이러한 그의 그림에는 인간이 전경(前景)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림 속 인간은 압도적인 자연과 대비되며 숭고의 감정을 효과적으로 환기하는 데에 기여한다.
- (라) 프리드리히는 1818년부터는 전경에 있는 사람을 이전보다 크게 그렸고 명암을 강하게 대조시켰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 「안개 바다를 굽어보는 산행가」란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자연과 마주 대하고 있는 인물은 명암의 대조를 통해 그 존재가 강하게 부각되면서 화면에 긴장감을 자아내는데, 이를 통해 인간의 힘으로 측량하고 지배할 수 없는 규모의 자연을 접하고 그러한 자연을 동경하는 인간의 낭만적 심정을 환기한다. 감상자는 이 인물을 통해 그림 속으로 끌려 들어가 그와 하나가 되어 자연을 관조하게 되며, 이러한 관조를 통해 무한하고 영원한 세계를 지향하는 낭만주의적 감성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 (마) 프리드리히의 풍경화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관계에 대한 내적 통찰을 나타내고 있다. 유한한 것과 무한한 것의 통일에 대한 지향을 담은 프리드리히의 풍경화는, 항상 변화를 겪는 인간에 비해 변치 않는 이상과 영원성을 대변하는 자연에 숨겨진 신적인 의미를 찾아내어 감상자로 하여금 그 의미를 나눠 가질 수 있게 하려는 노력을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고 있다.

28.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낭만주의의 특징적인 경향을 소개한 다음, 그와 관련해 글의 중심 화제가 프리드리히의 풍경화임을 밝히고 있다.
- ② (나): 자연과 예술에 관한 프리드리히의 견해를 중심으로 그의 작품 세계가 변모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숭고’의 개념에 관한 칸트의 견해를 소개해 프리드리히의 풍경화의 특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 ④ (라):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프리드리히의 풍경화 속 인물의 특징을 제시하고 작품에서 그 인물이 수행하는 역할을 소개하고 있다.
- ⑤ (마): 글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 다음, 프리드리히의 풍경화가 지닌 의의를 제시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29. 윗글을 토대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프리드리히, 「안개 바다를 굽어보는 산행가」, 1818년

- ① 작품에 그려져 있는 ‘안개 바다’는 유한한 존재인 인간과 대조되는 영원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② ‘산행가’와 ‘안개 바다’의 명암이 대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명암의 대조는 그림 속에서 ‘산행가’의 존재를 부각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프리드리히에 따르면, 그림 속 ‘안개 바다’는 신이 체현된 자연을 의미하며, 이를 나타낸 이 작품은 신과 인간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④ 칸트의 입장에서 보면, ‘안개 바다’는 인간에게 한계를 자각하게 만들어 쾌감을 억제하는 고통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숭고의 감정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산행가’는 감상자로 하여금 마치 자신이 그림 속 ‘안개 바다’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외경감을 토대로 무한한 세계를 동경하는 심정을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고 볼 수 있어.

30. 윗글에서 ㉠과 관련해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낭만주의에서는 인간이 예술을 통해 진리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 ② 낭만주의에서는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것을 진리로 생각한다.
- ③ 낭만주의에서는 삶과 분리된 성격이 강한 예술 작품을 높이 평가한다.
- ④ 낭만주의에서는 과학이 추구하는 진리에 미치는 예술의 영향을 중시한다.
- ⑤ 낭만주의에서는 예술가가 사실에 대해 객관적으로 탐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취이던 오래지 않은 옛날로 가자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사이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나오며 호미와 바구니를 든 환한 얼굴 그림처럼 나타나던 석양(夕陽).....

구슬처럼 흘러가는 냇물가 맨발을 담그고 늘어 앉아 빨래들을 두드리던 전설(傳說)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눈동자를 보아라 향아 회올리는 무지개빛 허울의 눈부심에 녀 빼앗기지 말고

철 따라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로 돌아가자 미끈뚱한 기생충의 생리와 허식에 인이 박히기 전에 눈빛 아침처럼 빛나던 우리들의 고향 병들지 않은 젊음으로 찾아가자구나

향아 허물어질까 두렵노라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흥넠랑 그만 내자

들국화처럼 소박한 목숨을 가꾸기 위하여 맨발을 벗고 콩바심하던 차라리 그 미개지(未開地)에로 가자 달이 뜨는 명절 밤 비단치마를 나부끼며 떼 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으로 돌아가자 냇물 굽이치는 싱싱한 마음밭으로 돌아가자.

- 신동엽, '향아' -

(나)

굳어지기 전까지 저 딱딱한 것들은 물결이었다

파도와 해일이 쉬고 있는 바닷속

지느러미의 물결 사이에 끼어

유유히 흘러다니던 무수한 갈래의 길이였다

그물이 물결 속에서 멸치들을 떼어 냈던 것이다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 틈에 끼이자마자

부드러운 물결은 팔딱거리다 길을 잃었을 것이다

바람과 햇볕이 달라붙어 물기를 빨아들이는 동안

바다의 무늬는 뾰대귀처럼 남아

멸치의 등과 지느러미 위에서 딱딱하게 굳어갔던 것이다

모래 더미처럼 길거리에 쌓이고

건어물집의 푸석한 공기에 풀리다가

기름에 튀겨지고 접시에 담겨졌던 것이다

지금 젓가락 끝에 깎두기처럼 딱딱하게 집히는 이 멸치에는

두껍고 뻣뻣한 공기를 뚫고 흘러가는

바다가 있다 그 바다에는 아직도

지느러미가 있고 지느러미를 흔드는 물결이 있다

이 작은 물결이

지금도 멸치의 몸통을 뒤틀고 있는 이 작은 무늬가

파도를 만들고 해일을 부르고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었던 것이다

- 김기택, '멸치' -

31. (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공간 이동에 따른 정서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 ② 특정한 종결 표현으로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③ 설의적 표현으로 화자의 심정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 ④ 대구의 방식을 규칙적으로 활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⑤ 대상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를 통해 정서적 교감을 드러내고 있다.

32. (가)에서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들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이 푸 투안은 공간 조직의 근본 원리는 인간의 신체,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았다. 공간 체험은 신체를 통해서 가능하며, 그 공간에서 활동하는 인간들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문화적 의미가 획득되기 때문이다. 이는 시적 공간의 구성 원리에도 적용할 수 있어서 (가)의 경우 신체 또는 인간들의 관계와 결합된 공간의 표상들은, '우리들의 고향'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구성하고 있다.

- ① 고운 얼굴 조석으로 비취이던 우물가
- ② 걸썩스런 웃음들 들려나오던 수수럭거리는 수수밭
- ③ 푸짐히 두레를 먹던 정자나무 마을
- ④ 얼굴 생김새 맞지 않는 발돋움의 흉내
- ⑤ 비단치마 나부끼며 떼 지어 춤추던 전설 같은 풍속

33. (나)의 시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딱딱하'게 '굳어지기 전까지'의 '물결'은 멸치의 원시적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 ② '그물'과 '햇빛의 곳곳한 직선들'은 멸치의 생명력을 앗아 가는 세계의 폭력성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 ③ '빠다귀'와 '모래 더미'는 생명력을 잃은 멸치의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이 작은 무늬'는 멸치가 생명력을 자각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⑤ '고깃배를 부수고 그물을 찢'는다고 한 것은 멸치의 생명력을 환기한다고 할 수 있다.

[34 ~ 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작년 초까지 아버지는 시내 공립 중학교의 서무과장이었다. 그런데 작년의 학기말을 끝으로 물러나오고 말았다. 그 점은 순전히 엄마 탓이었다. 엄마는 아버지 학교의 공금을 빼내 썼던 것이다. 물론 아버지를 통해서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처음부터 엄마의 농간에 떨어진 것은 아니었다. 공금을 빼내어 사용(私用)으로 쓰다니. 평생원인 아버지는 순제 그럴 만한 인물이 못 되었다. 비단 그 문제만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마디로 아버지는 소심하고 웅졸했다. 말이 없고 겁이 많았다. 이를 아버지는 전쟁 탓으로 돌렸다. 언젠가 아버지는, 고향을 잃을 때부터 가슴에 큰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 구멍은 통일이 되지 않는 한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다고 자탄했다. 그러나 고향을 잃고 살기는 엄마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유는 타당치가 못했다. ㉠ 아버지는 저 유명한 금강산을 끼고 있는 강원도 통천군 두백리가 고향이었다. 들은 바로는 그곳에 배 열 척과 큰 어장까지 가진 재력 있는 수산업자의 아들로 태어났다. 해방 전에는 일본서 전문학교까지 다녔다. 해방 후로는 서울서 대학에 적을 두었다. 전쟁이 나던 해 유월, 약혼을 하기 위해 고향으로 올라간 것이 그만 발이 묶여 버렸다. 그해 칠월 아버지는 고향서 징집을 당해 인민군 소위로 참전했다. 지난 봄, 어느 날 아버지는 나도 끼인 자리에서 형의 질문에 대답했다.

“그러나 난 공산주의가 원래 새, 생리에 맞지 않았어. 객관적으로 어느 주의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 그들은 매사에 너무 과격했거든. 마치 사나운 맹수가 인간의 탈을 쓰고 인간을 집단으로 기, 길들이려 덤벼 들었어. 그들은 인간을 생각하는 동물로 버려 두지 않았다니깐. 혁명, 투쟁, 반동, 처단 아, 단어만 드, 들어도 얼마나 끔찍하니. 사람이란 다 개성이 다름으로 해서 가, 각자의 꿈과 소망이 다르듯, 그런 자유와 창의력을 나는 존중하지. 또 너들이 알다시피 인간이 생산과 노동 이외 사색도 피, 필요…….”

내가 아버지의 말을 꺾었다.

“아버진 역시 사색파시다, 이 말이시겠쎄. 너무 사색이 깊으셔서 결단력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꺾테기. 오히려 소나 말처럼 잘 길들여진, 심지어 엄마에게까지 꺾 못 하는 노예…….”

이제 형이 내 말을 꺾었다. “아니야. 아버지는 정말 전쟁의 희생자야. 통일을 못 이루는 이 분단의 현실이 아버지의 모든 희망을 빼앗아 갔어. 요컨대 아버지 삶의 근간을 끊어 버린 거야.”

“형, 잠깐만” 하고 내가 말했다. “교과서에서도 노래삼아 나오는 통일, 통일이란 말은 귀에 못이 박일 정도야. 그런데 뭐야. 우리 눈으로 똑똑히 보다시피 지금 이 상태에서 저쪽 놈들과 무슨 대화가 통하겠어. 선생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공존하는 한 무력의 길 이외는 통일이 힘들다고 말했어. 나도 동감이야.”

“힘들기는 히, 힘들지. 그러나 누가 지금 토, 통일의 길을 포기하고 있어? 남북 오천만이 넘는 인구 중 통일을 막고 있거나 포기하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 아버지는 머리를 쫄레쫄레 흔들며 말했다.

[A] “포기가 아니라 체념이지요. 아버지도 냉정히 생각해 보세요. 통일을 위해 누가 전쟁을 원해요? 오천만이 넘는 인구 중 몇 할이 전쟁을 원하고 있겠어요? 모르긴 하지만 전쟁은 모든 것을 망쳐 버려요. 차라리 전쟁을 원하기보다는 오히려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아요. 우선 내가 살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말했다.

“너희 세대는 왜 통일이 중요한지 몰라.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 한 건 순전히 교육 탓이야.” 형이 강한 어투로 내 말을 반박했다.

“교육 탓만은 아니야. 이 물질 위주의 기계주의 사회가 저 저, 젊은 애들을 다른 쪽으로 몰아가고 있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잃게 하는 거야.”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아버지가 말을 들려냈다.

“저는 통일이 절실하다고 외치는 아버지나 형이 되기보단 차라리 통일을 모르는 쪽이 좋아요. 그리고 두 분을 절대로 닮지 않겠어요.” 내가 말했다.

“누가 뭐래도 인간은 저, 정직이 중요해. 네 생각은 정직하지 못해.” 아버지의 말이었다.

아버지의 그 말에는 잘못이 없었다. 아버지는 늘 정직과 청렴결백을 생활신조로 삼았다. 그래서 학교에서 빼낸 공금을 보름 안으로 메워 놓겠다는 엄마의 허튼 약속을 절대 믿지 않았다. 그러자 엄마는 파산, 집단 자살, 그것도 아니라면 나 혼자 감옥에 가거든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극단적인 위협조차 사양치 않았다. 그렇게 협박과 울음을 섞어 아버지를 설득시킨 것이다. 그 결과 겨우 오백만 원의 돈을 돌려 낼 수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인사불성으로 술에 취해 돌아왔다. “이건 나, 낱강도다. 이제 나도 책임질 수 없는 일이다. 끝장이다.” 아버지는 우리의 방으로 건너와 형과 나를 잡고 투정했다. 엄마는 그 돈으로 깨어지려는 계를 겨우 수습한 모양이었다. 아버지와 약속한 보름이 지났다. 그러나 엄마는 그 돈을 메워 내지 못했다. 아버지는 안절부절못했다. 엄마도 안달이었다. 이제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읊조렸다. 부정보다는 오히려 죽음을 택하는 게 낫다는 것이었다. 아버지는 결국 권고사직을 당했다. 그로써 아버지의 스물네 해 공직 생활은 불명예로 끝났다. 퇴직금을 받았으나 그 돈으로 구멍을 막기에는 모자랐다. 나머지 돈은 엄마가 어떻게 융통한 모양이었다. 학교에서 송별회를 마치고 오던 날, 아버지는 우리들 앞에서 오랜만에 울었다. 그러나 끝내 엄마를 원망하지는 않았다. “암탉이 울면 지, 집안이 망한다더니 끝내 그 꼴을 보, 보고 말았구나.” 한숨 끝에 이 말을 중얼거렸을 뿐이었다. 좋게 말해 아버지는 제상에 오른 선한 양이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아버지는 집 안에 들어앉고 말았다. 매달 일만천 원씩 나오는 삼급 상이용사 연금이 이제 아버지의 유일한 벌이었다. 그러나 역시 엄마는 수완가였다. 엄마는 우리 식구를 거리에 나앉게 하지 않았다. 물론 끼니를 거르게 만들지도 않았다. 엄마의 능력으로 우리 식구는 그런대로 옛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다. 오직 경제권이 전폭 엄마에게로 옮겨 간 점이 달랐다. ㉠ 아니, 전에도 경제권은 엄마가 쥐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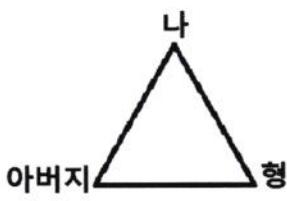
- 김원일, '도요새에 관한 명상' -

34. 윗글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것은?

- ① '아버지'는 청렴결백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왔다.
- ② '아버지'는 인간의 개성을 억압하는 이념에 대해 비판적이다.
- ③ '엄마'는 '아버지'의 퇴직금만으로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갔다.
- ④ '아버지'는 학교 공금을 빼내 쓴 일로 불명예스럽게 퇴직했다.
- ⑤ '아버지'와 '엄마'는 고향을 잃고 살아간다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35. <보기>의 ㉠을 설명하기 위한 단서를 [A]에서 찾는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윗글에서 [A]는 현실 문제와 관련하여 인물들이 대화를 하는 장면이다. 이 장면에서 '나'는 대화에 참여하는 인물 중의 하나이면서 동시에 서술자이기도 하다. 이는 현실 문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제시하고, ㉠ 하나의 시각을 다른 시각으로 조명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의 비판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작가의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① '영구적인 분단'이 더 좋다는 '나'의 생각은, '형'에 의해 잘못된 '교육'의 결과로 진단된다.
- ②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일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아버지'의 생각은, '나'에 의해 '냉정'하지 못한 생각으로 치부된다.
- ③ '분단'이 아버지의 '삶의 근간'을 빼앗아갔다는 '형'의 생각은, '나'에 의해 '무력의 길'로라도 통일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해된다.
- ④ '젊은 애들'이 '도덕적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잃었다는 '아버지'의 생각은, '나'에 의해 '교육계에 몸을 담고' 있었다고 '둘러대'는 말로 폄하된다.
- ⑤ '우선 내가 살고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나'의 생각은, '아버지'에 의해 '물질 위주의 기계주의'로 인한 도덕성의 상실로 비판된다.

36.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갈등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인물의 심리 변화를 서술하고 있다.
- ③ 인물의 처지와 가치관을 분석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행동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내력을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37. <보기>는 [B]를 시나리오로 각색하는 공동 과제를 수행한 결과이다.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S# 91 안방**

아버지 : 누가 뭐래도 인간은 저, 정직이 중요해. 당신 생각은 정, 정직하지 못해.

엄마 : (애원조로) 아 내가 뭐했는데. 보름 안으로 꼭 채워준다고 했잖아. 이번만 좀 어떻게 해줘, 응?

아버지 : 그게 중, 중요한 게 아니야. 애, 애초에 공금을 빼낸다는 생각이 자, 잘못이라니까.

엄마 : (목소리를 높이며 빠르게) 그 돈이 없으면 우린 파산이야. 내가 벌어오는 돈이 없으면 우리 네 식구 모두 죽어야 한다고. 야님 내가 감옥살이 하는 동안 혼자서 고고하게 잘 먹고 잘 살든가!

아버지 : .....(묵묵부답, 집을 나선다.)

**S# 92 며칠 후, 안방**

아버지, 두툼한 돈봉투를 엄마에게 건넨다. 화색이 도는 엄마의 얼굴과 침울한 아버지의 표정 교차. 화면을 분할하여 각각의 얼굴 C. U.\*

**S# 93 어느 날 밤, 형제의 방**

아버지의 취한 모습. 인사불성이 되어 ‘끝장이다’를 반복하며 형제에게 술주정하는 아버지. 말리려 온 엄마에게도 같은 말을 반복하며 주정을 한다.

**S# 94 보름 후, 안방**

아버지 : (안절부절못하며) 도, 돈을 채워주겠다는 날인데.....어떻게 된 건가?

엄마 : (되려 화를 내며) 내가 안 주고 싶어 안 주는 거냐고. 갖다 줄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라니깐!

아버지 : (잠시 사이를 두고, 그럴 줄 알았다는 말투로) 그냥 내, 내가 죽어야지. 공금에 손을 대서 나, 낮을 붉히게 되느니 주, 죽는 게 낫겠어.

\*C.U. : 시나리오 용어의 하나로, 어떤 한 부분을 특별히 크게 확대하여 찍는 것을 말함. ‘Close Up’의 약어.

- ① S# 91: ‘정직’을 생활신조로 삼는 ‘아버지’의 성격을 고려해서, 원작에서 ‘아버지’가 다른 인물에게 했던 말을 ‘엄마’에게도 하는 걸로 했군.
- ② S# 91: ‘엄마’가 ‘협박과 울음’으로 ‘아버지’를 설득하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대화 장면으로 구성해서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구체화하고 있군.
- ③ S# 92: ‘오백만 원의 돈을 돌려 낼 수 있었다.’라는 원작의 구절에서 ‘아버지’와 ‘엄마’의 심정을 추리하여, 두 인물의 심정 대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했군.
- ④ S# 93: ‘아버지’가 ‘형과 나’를 붙잡고 투정을 하는 원작과는 달리, ‘엄마’까지 등장시켜 ‘아버지’가 가족 모두에게 가졌던 불만을 살려 내고 있군.
- ⑤ S# 94: ‘약속한 보름’이 지난 후 ‘아버지’가 ‘매일’ 자살 타령을 읊조렸다는 부분을, 원작과 달리 하나의 시공간을 설정하여 ‘아버지’와 ‘엄마’의 갈등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고 있군.

38. 밑글의 단어를 활용하여, ‘아버지’를 주어로 ㉠을 달리 표현해 보았다.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아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만큼은 ‘공생원’으로 살지 않았다.
- ② 아니, 경제권 행사에서 아버지는 늘 ‘깍대기’에 불과했을 뿐이다.
- ③ 아니,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날강도’가 되는 일만은 극히 꺼렸다.
- ④ 아니, 경제권 행사에서 아버지는 항상 ‘희생자’의 역할을 맡아 왔다.
- ⑤ 아니, 아버지는 언제나 경제적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다.

[39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경주에 사는 박생은 학문의 성취 수준이 높았으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늘 불쾌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인품이 온후하여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다. 어느 날 박생은 한밤중에 ‘주역(周易)’을 읽다가 얼핏 잠이 드는데, 꿈에 나타난 저승사자에게 인도되어 염부주에 가게 되고, 그곳에서 염부주의 임금인 염왕을 만난다.

박생이 또 물었다.

“임금님께서서는 무슨 인연으로 이 이역(異域)에 살면서 임금이 되셨습니까?”

임금이 대답하였다.

“나는 인간 세상에 있을 때 왕에게 충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도적을 토벌하였소. 그리고 스스로 맹세하기를 ‘죽은 뒤에도 마땅히 여귀(厲鬼)\*가 되어 도적을 죽이리라.’ 하였소. 그런데 그 소원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고, 충성심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흉악한 곳에 와서 우두머리가 된 것이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우러르는 사람들은 모두 전세에 부모나 임금을 죽인 자들이거나 간교하고 흉악한 무리들이요.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통제를 받아 그릇된 마음을 고치려 하고 있소. 그러나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면 하루도 이 땅의 우두머리가 될 수 없소. 과인이 들으니 그대는 정직하고 뜻이 굳세어 인간 세상에 있으면서 지조를 굽히지 않았다고 하니 진실로 달인(達人)이라 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런데도 그 뜻을 당세에 한 번도 펼쳐 보지 못하였으니 마치 형산의 옥이 티끌 가득한 벌판에 버려지고 밝은 달이 깊은 못에 잠긴 것과도 같소. 훌륭한 장인을 만나지 못하면 누가 지극한 보물임을 알아주겠소? 그러니 어찌 애석하지 않겠소? 나는 시운(時運)이 이미 다하여 장차 활과 검을 버리고자 하오. 그대도 또한 명수(命數)가 이미 다했으니 곧 썩덤불 속에 묻힐 것이요. 그러니 이 나라를 맡아 다스릴 사람이 그대가 아니고 누구겠소?”

임금은 잔치를 열어 박생을 극진히 대접해 주었다. 그리고 박생에게 삼한(三韓)이 흥하고 망한 역사를 물으니 박생이 하나하나 대답하였다. 이야기가 고려가 창업한 대목에 이르자 임금은 거듭 탄식하며 서글퍼하다가 말하였다.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요. 백성들이 두려워서 따르는 것같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는 반역할 뜻을 품고 있어서 날이 가고 달이 가면 큰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덕이 있는 사람은 힘으로 왕위에 올라서는 안되오. 하늘이 비록 거듭 말해 주지는 않아도 행사(行事)로 보여주니, 처음부터 끝까지 상제의 명령은 지엄한 것이요. 대체로 나라라는 것은 백성의 나라요, 명이라는 것은 하늘의 명이요. 그런데 천명이 떠나가고 민심이 떠나가면 임금이 비록 제 몸을 보전하고자 한들 어떻게 가능하겠소?”

박생이 또 역대의 제왕들이 이도(異道)\*를 숭상하다가 재앙을 입은 이야기를 하자 임금이 문득 이맛살을 찌푸리며 말하였다.

“백성들이 태평세월을 노래하는데도 홍수와 가뭄이 닥치는 것은 하늘이 군주로 하여금 일을 삼가라고 거듭 경계하는 것이요. 백성들이 원망하고 탄식하는데도 상서로운 일이 나타나는 것은 요괴가 군주에게 아첨해서 더욱 교만하고 방종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러니 역대 제왕들에게 상서로운 징조가 일어났던 때가 백성들이 안락함을 누리던 때겠소, 아니면 원통함을 부르짖던 때겠소?”

박생이 말하였다.

“간신들이 별 때처럼 일어나고 큰 변란이 계속 일어나는데도 윗사람들이 백성들을 협박하고 위협하면서도 잘한 일이라고 여기며 부질없는 명예만 구하려 한다면 어찌 나라가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임금은 한참 동안 묵묵히 있다가 탄식하며 말하였다.

“그대의 말이 옳소.”

잔치를 마친 후 임금이 박생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손수 다음과 같은 ㉠ 조서를 내렸다.

염주의 땅은 실로 풍토병이 유행하는 곳이므로 우(禹)임금의 발자취도 이르지 못하였고, 목왕(穆王)의 준마도 오지 못하였다. 붉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다. 목이 마르면 이글이글 끓는 구리 물을 마셔야

하고, 배가 고프면 활활 타오르는 쇠덩이를 먹어야 한다. 그러니 야차(夜叉)나 나찰(羅刹)이 아니고는 발붙일 곳이 없고, 도깨비가 아니고는 그 뜻을 펼칠 수가 없는 것이다. 불의 성벽이 천 리에 둘러 있고, 철로 된 산악이 만 겹이나 겹쳐 있다. 백성들의 풍속이 강하고 사나워서 정직한 자가 아니면 그 간사함을 판단할 수 없다. 지세도 굴곡이 심해 험준하니 신령하고 위엄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들을 교화할 수가 없다.

아아, 동쪽 나라의 박아무개는 정직하고 사심이 없고, 강직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남을 포용하는 자질을 갖추었고, 어리석은 자들을 깨우쳐 줄 재주를 가졌도다. 생전에 비록 현달하여 영화를 누리는 못하였지만 죽은 뒤에는 기강을 바로잡을 것이로다. 모든 백성이 길이 믿고 의지할 사람이 그대가 아니고 누구겠는가?

마땅히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 다스려 백성들을 착한 길로 이끌고, 몸소 실천하고 마음으로 깨달아 세상을 태평하게 해주오. 하늘을 본받아 법을 세우고, 요임금이 순임금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던 것을 본받아 내 이제 이 자리를 그대에게 물려주나니 아아, 그대는 삼가 받을지어다.

박생은 조서를 받아 든 후 예법에 맞추어 두 번 절하고 물러 나왔다. 임금은 다시 신하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치하를 드리게 하고, 태자의 예로써 그를 전송하게 하였다. 그리고 박생에게 경계하였다.

“머지않아 다시 돌아와야 할 것이오. 이번에 가거든 수고롭지만 내가 말한 바를 인간 세상에 널리 전하여 황당한 일들을 다 없애 주오.”

박생은 다시 두 번 절을 올리고 감사하면서 말하였다.

“감히 명하신 바의 만분의 하나라도 받들지 않겠습니까.”

박생이 문을 나선 후 수레를 끄는 자가 발을 헛디더 수레가 뒤집혔다. 그 바람에 박생도 땅에 넘어졌는데 놀라서 깨어 보니 한갓 꿈이었다. 박생이 눈을 떠 보니 책은 책상 위에 내던져 있고, 등잔불은 가물거리고 있었다. 박생은 한참 동안 감격스러우면서도 의아하게 여기다가 장차 죽게 될 것을 깨닫고 날마다 집안일을 정리하는 데 몰두하였다.

몇 달 뒤 박생이 병을 얻었는데 스스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결국 의사와 무당을 사절하고 세상을 떠났다. 박생이 죽던 날 밤 이웃 사람들의 꿈에 어떤 신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 주었다.

“네 이웃집 아무개가 장차 염라대왕이 될 것이다.”

- 김시습, ‘남염부주지(南炎浮洲志)’ -

\* 여귀(厲鬼): 재앙을 가져오는 악귀.

\* 이도(異道): 불교를 이룸.

### 39.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체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고 있다.
- ② 배경묘사를 통해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 ③ 과거와 현재를 교차하여 사건에 입체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④ 등장인물들 간의 대화를 토대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
- ⑤ 작품 속의 서술자가 상황과 인물의 태도에 대해 논평하고 있다.

### 40.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염왕’은 염부주를 떠나야 하는 것을 후회했다.
- ② ‘염왕’은 왕위를 물려 달라는 ‘박생’의 요구를 듣고 당황했다.
- ③ ‘박생’은 꿈에서 깬 후 자신이 죽을 것을 깨닫고 신변을 정리했다.
- ④ ‘박생’은 ‘이도(異道)’를 숭상해 현실 세계에서 널리 알리고자 했다.
- ⑤ ‘박생’은 현실 세계로 돌아와 염부주에서의 경험을 ‘신인’에게 알려 주었다.

41.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남염부주지’의 작가 김시습이 살았던 당대의 현실은 세조의 왕위 찬탈이 일어났고 인제가 제대로 등용되지 않아 백성을 위하는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이다. 김시습은 이처럼 불의가 판을 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치의 정도(正道)를 회복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가 정치의 정도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왕도 정치이다. 덕목을 갖춘 왕이 백성을 위하는 민본 정치를 해야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그의 사상은 ‘남염부주지’에서 염왕과 박생을 통해 제시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김시습의 사상과 이상을 대리해서 제시하고 있는 대변자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의 주된 공간적 배경이 되고 있는 ‘염부주’는 김시습이 개혁하고자 했던 현실 세계를 상징하고 있다.

- ① ‘붉은 구름이 해를 가리고, 독한 안개가 하늘을 막고 있’는 공간으로 ‘염부주’를 형상화한 것은 부조리한 현실 세계의 특성을 상징적으로 부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② 염왕이 말한 ‘훌륭한 장인’은 풍속을 교정하고 백성을 교화해 정치의 정도(正道)를 회복하기 위해 임금이 반드시 등용해야 하는 인재를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나라를 다스리는 이가 폭력으로 백성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염왕의 말을 통해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중시했던 작가의 민본주의 사상이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④ ‘정직하고 사심이 없는 사람’이어야 ‘염부주’의 우두머리가 될 수 있다는 염왕의 말은 덕목을 갖춘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작가의 생각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⑤ 큰 변란이 일어나는데도 부질없는 명예만 좇는 ‘윗사람들’이 득세한 현실에 대한 박생의 비판은 당대의 현실을 개혁의 대상으로 보았던 작가의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4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박생’이 염부주의 왕이 되어야 하는 까닭을 밝히고 있다.
- ② ‘박생’이 ‘염왕’의 뒤를 이어 왕이 될 것임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 ③ ‘박생’이 염부주를 태평하게 만들어줄 것이란 ‘염왕’의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④ ‘염왕’이 ‘박생’에게 신이한 능력을 기르는 방법을 전수해 주기 위해 지은 것이다.
- ⑤ ‘염왕’이 ‘박생’과 치국(治國)에 대한 의견 일치를 이룬 후에 ‘박생’에게 내린 것이다.

[43 ~ 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횡장(行裝)을 다 찢티고 석경(石逕)의 막대 디퍼  
 빅천동(百川洞) 거티 두고 만폭동(萬瀑洞) 드리가니  
 은(銀) 7톤 무지계 옥(玉) 7톤 룡(龍)의 초리  
 섯들며 썸는 소리 십리(十里)의 즈자시니 [A]  
 들을 제는 우레러니 보니는 눈이로다  
 금강딤(金剛臺) 밍 우 층(層)의 선학(仙鶴)이 샷기 치니 [B]  
 춘풍(春風) 옥덕성(玉笛聲)의 첫 즘을 끼뚝던디  
 호의현상(縞衣玄裳)이 반공(半空)의 소소 쓰니  
 서호(西湖) 넷 주인(主人)\*을 반겨셔 넘노는 듯  
 쇼향노(小香爐) 대향노(大香爐) 눈 아래 구버보고  
 정양스(正陽寺) 진혈딤(眞歇臺) 고터 올라 안즌마리  
 녀산(廬山) 진면목(眞面目)이 여기야 다 뵈는다  
 어와 조화옹(造化翁)이 현스토 현스홀샤 [C]  
 늘거든 썬디 마나 섯거든 솟디 마나  
 부용(芙蓉)을 고갯논 듯 백옥(白玉)을 못것논 듯  
 동명(東溟)을 박츠논 듯 북극(北極)을 꺾왓논 듯  
 ㉠ 놉홀시고 망고딤(望高臺) 외로올샤 혈망봉(穴望峰)이  
하늘의 추미러 므스 일을 스로리라  
천만(千萬) 겁(劫) 디나드록 구필 줄 모르는다  
 어와 녀여이고 너 7튼니 썬 잇는가  
 기심딤(開心臺) 고터 올라 등향성(衆香城) 바라보며  
 만이천(萬二千) 봉(峰)을 녀녀(歷歷)히 혀여흐니 [D]  
 봉(峰)마다 밍쳐 잇고 굿마다 서린 기운  
 뭉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  
 더 기운 흐터내야 인걸(人傑)을 뵈들고자

- 정철, '관동별곡(關東別曲)' -

\* 서호 넷 주인 : 매화를 아내로 삼고 학을 자식으로 삼아 풍류를 즐겼다고 알려진 송나라의 임포를 가리킴.

43.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간편한 차림으로 산에 올라 자연의 정경을 접했다.
- ② 화자는 '금강딤'에 올라 '쇼향노'와 '대향노'를 굽어보며 흥취에 젖었다.
- ③ 화자는 학이 자신을 반긴다고 여기며 자연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냈다.
- ④ 화자는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에 조물주의 숨씨가 뛰어나다며 감탄했다.
- ⑤ 화자는 '진혈딤'에 올랐다가 다시 '기심딤'에 올라 산봉우리들을 바라보았다.

44. <보기>의 입장에서 [A] ~ [D]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진경산수(眞景山水)의 이론적 배경을 제시한 김창흡은 진경(眞景)을 그릴 때 '신정(神情)'을 얻음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했다. 신정은 외물(자연)과 만날 때 일어나는 신령스러운 마음의 작용을 의미하는데, 이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대상의 본질적 특성을 보여줄 만한 것을 살리고 외적인 형상에 대한 세세한 묘사는 생략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말을 그린다면 말의 형과 색을 상세히 묘사하는 것보다 말의 역동적인 움직임을 포착하여 담아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관동별곡은 이와 같이 신정이 드러나는 묘사로 이루어져 있다. 신정이 드러나는 묘사는 압축과 생략을 동반하기 때문에 마치 띄엄띄엄 점을 찍는 것과 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독자들은 이러한 점들을 상상을 통해 연결함으로써 머릿속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게 되고, 화자의 감흥을 생생하게 느끼게 된다.

- ① [A]에서 화자가 폭포를 대했을 때 '룽', '눈' 등을 떠올렸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화자가 폭포를 대했을 때 얻은 '신정'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 ② [B]에서는 '춘풍(春風) 옥덕성(玉笛聲)'과 학의 비상을 연결해 학을 대한 화자의 '신정'을 나타내고 있는데, 학의 비상은 화자의 고양된 감흥을 환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 ③ [D]의 '뭉거든 조티 마나 조커든 뭉디 마나'는 화자가 느낀 봉우리의 본질적 특성을 제시한 것으로 봉우리를 대했을 때 얻은 화자의 '신정'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어.
- ④ [A], [C]에서는 각각 폭포와 산봉우리의 모습을 비유를 통해 점을 찍듯 제시하고 있는데, 독자가 그렇게 제시된 것들을 연결해 상상하면 아름다운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 ⑤ [B], [D]에서는 공통적으로 색채 이미지를 활용해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나타냄으로써 화자의 감흥을 선명하게 부각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볼 수 있어.

45.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는 자연 속에서 자적하며 생활하고 있는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화자는 자연의 모습에서 혼탁한 속세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군.
- ③ 화자는 자연물의 모습으로부터 자신이 지키며 살아야 할 바람직한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 ④ 화자는 자연물의 조화로운 모습에서 백성과 어울려 선정을 베푸는 임금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군.
- ⑤ 화자는 속세에서 자신이 맡은 직분을 잊은 채 자연에 몰입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이  
관